

# 판각문화 전통 오늘에 잇는다

### 해인사 성보박물관 개관 기념

### '지혜와 창조' 24일~9월 24일

첫 기획전시를 여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황적스님은 "750여년 만에 고려선인들 앞에 우리 후대 판화가들의 작품을 보여줄 것이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성보박물관이 되도록 다양한 특별전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판화가 홍선웅씨를 중심으로 정바파, 김영만, 임병중, 남궁산 등 국내 판화작가 24명이 2년 동안 해인

사를 답사하고, 사전 작품 품평회를 여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준비된 만큼 전시에서는 다양한 판화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연꽃과 풍경 등 사물(四物)의 이미지를 반복적 도상으로 표현한 것들과, 현대인들의 일상적이며 소박한 삶의 가치를 불교문화와 접목시켜 추상적 이미지로 재구성한 것, 해인사와 주변의 암자, 그리고 가야산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것, 불교 건축물 및 석탑·불상·선승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자연 생명 등 상생으로서의 우주적 가치관을 불교적 언어를 통해 재구성한 것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판화 작품들이 선보인다. 판화의 종류 또한 목판화, 동판화, 예종판, 실크스크린, 컴퓨터 프린트, 엠보싱지 판화, 석판화 등 판화 형식의 진보를 살필 수 있다.

이번 판화전을 기획한 판화가 홍선웅씨는 "조선 영·정조 시대까지 전란했던 우리의 판각문화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해방 이후 정치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해인사 판화전은 우리의 판각문화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대의 작품세계에 말착시켜나가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24일~9월 24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051-934-0988

이은자 기자 eel@buddhaga.com

## 현대 작품으로 승화한 판화 미학

소재 해인사·주변 암자·석탑 등 다양

종류 목판·동판·석판화 등 광범



○이번 전시에는 국내 판화작가 24명이 2년 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판화작품들이 선보인다.

'수취인불명' '나쁜 남자' 등 독특한 영화를 주로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이번에는 수행자의 인생 역정을 그린 영화 '봄·여름...'을 들고 왔다.

### 동자승이 노스님 되기까지

### 희노애락·운회사상 영상속에

### 김기덕 감독 영화 '봄·여름...' 크랭크인

9월 초 크랭크인에 들어가 내년 8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어린 동자승이 중장년을 거쳐 초로의 노스님이 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통해 인간의 희노애락과 운회사상 등을 김기덕 감독 특유의 독창적 연출로 스크린에 담는다. 첫 촬영에 앞서 제작진은 현재 영화의 주무대가 될 경북 청송군 주왕산 주산 연못 사찰 세트장 마무리 공

사에 한창이다. 특히 대다수의 불교 소재 영화들이 현존하는 사찰을 배경으로 촬영하는데 반해, 이 영화는 조선 숙종때 만들어진 5천여평의 주산 저수지 한 가운데 수상 법당 세트장을 만들고 90% 이상의 촬영을 이곳에서 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현재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자승과 중장년 스님역은 이미

전문 배우를 캐스팅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비중있는 배역인 노스님 역은 실제 스님을 출연시키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인연있는 사찰에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한성호 LI 필름 기획실장은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싶다는 연기를 위해 진짜 스님을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며 "55세 이상 스님들 가운데 영화에 관심있는 분들의 뜻을 물어봐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 발표회는 11월경에 가질 예정이다. ☎02-3444-4143

김주일 기자 jim@buddhaga.com

## 고려·조선 대외교류 어떻게 했을까



다리가 긴 행서체의 티베트어로 쓰여진 <대원(大元)을루스 명명문>의 법지 서적인 이것은 원나라 불교계 최고 권위자인 제사(節師)가 고려 수선사(修善師)의 진감국사 총지스님에게 보낸 공문서이다. 고려 사원과 원, 고려 불교계와 제사와의 관계 및 공물 제국사를 고찰함에 있어 중요한 1차 사료가 된다.

원래 문서는 한 장의 커다란 종이였으나, 마모되어 크고 작은 6장의 종이

### 고려·원 관계 발원 티베트어 법지 최초 공개

### 조천도·조선통신사 행렬도 등 500점 선봬

비행기 컴퓨터도 없었던 먼 옛날에도 다른 나라의 사찰과 교류하고, 그 나라의 곳곳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7일~10월 13일까지 열리는 '고려·조선의 대외교류'에는 고려시대 우리나라와 원나라 사원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송공사의 티베트 법지(法地)가 최초로 전시돼 관심을 끈다.

로 나누어 지게 되고 다시 이것이 한 장으로 배열되었다. 문서 하단에 주인(朱印)의 가장 아랫부분이 남아 있다.

이밖에도 고려와 송, 원나라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에서부터 조선의 대외교류, 대일본 사신들의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조천도(朝天圖), 조선통신사행렬도 등에 이르기까지 500여점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된다. ☎02-398-5074

### '출근 최승희 사진展' 열어

### 포스터 등 자료 30점도

공주시립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출근 최승희 사진전'이 10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일제시대 전세계에 동양풍의 아름다움을 알린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생애를 조명할 이번 사진전은

### 문화 소식

최승희 연구의 권위자인 중앙대 정병호 교수가 기증한 최씨의 사진 138점이 선보인다.

### 2002년 문예연감 발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전문 연감인 <문예연감> (제26호)을 발간했다.

2002<문예연감>은 2001년도에

전국에서 벌어진 문화예술활동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개관을 수록하였고, 이 전연 없었던 총론을 분야별 개관 앞에 게재하여 해당분야의 흐름을 조망하도록 편성했다. 또한 각 분야의 활동상을 낱자별 일지로 정리하고 일지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통계표를 통해 2001년 문화예술의 특징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우리출판사의 죽음에 대한 책!!!

우리출판사 | 전화 02-313-5047, 5056 | 팩스 02-393-9696 | E-mail: wonbook@chollian.net

###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하라



명남자 지음 / 신국판 / 296쪽 / 값 9,000원

###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 명의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옥중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아 잘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하며, 알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 환구(活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을 떼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침된 철학자는 결코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라고 할만 이는 스피노자였다. 그리고 보면 죽음을 탐구하려 내가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싫어했다. 그러나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 적멸의 즐거움



정휴스님 지음 / 신국판 / 240쪽 / 값 7,000원

### 고승들의 즐거운 죽음 이야기!

'시신을 별제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도담도 만들지 말라'는 청학스님, '열반에 들면 시신을 숲 속에 두고 들불에 타도록 하라'고 말한 해안스님 등 총격과 전율을 느끼게 하는 여러 선사들의 일적 과정을 그렸다. 또 물구나무서서 거꾸로 임적이거나 들 앞을 태연히 걸다가 오늘 떠나겠다고 말하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신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유언을 남긴 여러 선사들의 임종계 등도 소개하였다.

육신이 풀려 태 홀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홀로 돌아가 다시 풀려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떤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 죽어서 시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휴스님 엮음 / 신서책판 / 132쪽 / 값 5,000원

###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사들의 깨침의 노래!

중국의 선사(禪師)와 우리 나라 역대 선사들이 죽음을 맞아 토해낸 열반송을 정휴스님이 짧은 시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해지는 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정진해서일까, 선사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즐겼다. 죽음을 죽음이 아니게 하는 힘, 그것이 수행의 절정이라고 말한 스님의 글에서 불교사상의 정수 및 선(禪)의 진수를 느낄 것이다.

이 禪詩(임종계)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날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없어서 열반하기가 싫어 서서 임종하는 해탈의 절정이 있으며, 건다가 문득 평상에 잠겨 보리수 잎을 잡고 입적하는 철목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계 속에는 해탈의 욕망이 없었습니다.

### 죽음을 준비합시다



정휴스님 엮음 /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생일 관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기 현강스님의 책은 잘 죽기 위한 가르침인 정토선양의 황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용신 해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물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물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원문제-